

2022년 2/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2. 3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2. 3. 10 ~ 25(휴일제외 10일 간)
- 분석대상 : 122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41	81	28	94		
비중	33.6	66.4	23.0	77.0		
업종별(완성품 기준)						
	IT·가전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조선·부품	기타
매수	20	20	55	13	8	6
비중	16.4%	16.4%	45.1%	10.7%	6.6%	4.9%

※ 업체별 업종 복수응답 가능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II

요약

● 2022년 2분기 전망BSI '116.4', 4분기 실적BSI '84.4'

- 창원 제조업 전망BSI, 5개 분기 연속 기준치 상회해 매출, 생산량 중심으로 회복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실적BSI는 3개 분기 연속 기준치 하회
- 원자재 가격과 환율상승, 공급망 불안, 금리인상 등 동시다발적 채산성 악화 요인 지속... 긍정적 전망 후 실적체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
- 전망BSI, 매출액(125.4), 공장가동 여건(103.3) 호조 전망에도, 영업이익(99.2), 설비투자(94.3), 자금조달 여건(77.0) 기준치 하회
- 업종별로 철강(130.8), 기계(125.5), 조선·부품(112.5), 자동차부품(110.0) 등 창원 주력업종 대부분 긍정적 전망, 하지만 지난해 창원 제조업 이관 가전·IT 업종(94.0)은 기준치 하회

● 2분기 가장 큰 리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부품 수급문제 꼽아...

- 2분기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31.5%),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15.6%) 등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부품 수급문제 꼽아
- 유가·원자재 가격에 이어
대·중견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18.6%)
중소기업은 '국내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15.3%)

● 차기정부 중점과제, '노동관련 제도 개선'(25.6%)과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25.3%)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23.6%)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제, 주2시간제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29.9%) 꼽아...
- 다음으로
대·중견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등 국제관계 대응'(16.0%),
중소·내수중심기업은 '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 미래산업 육성'(15.5%,15.0%),
수출중심기업은 '사업 전환·재편 지원 확대 등 기존업종 고도화 추진'(16.4%)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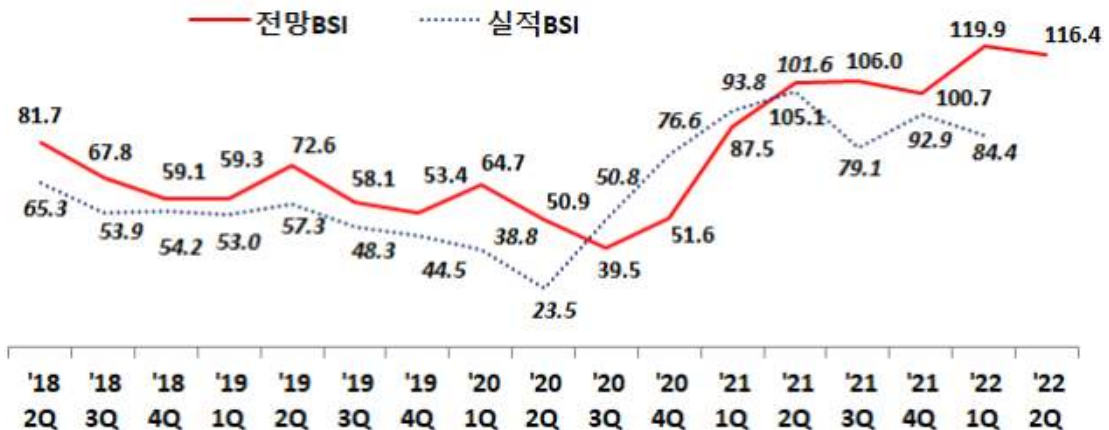
Ⅲ

2022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창원지역 2022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 지수)가 '116.4'(기준치 100)으로 조사되어 지난해 2분기 전망 이후 5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음. 코로나19로 정체되어 있던 해외 비즈니스가 재개되고 있고, 국내외 산업재개에 따른 기계류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임.
- 하지만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난 실적BSI는 기준치를 밑돈 '84.4'로 조사되었음. 수주량 증가에 따른 매출 및 생산량에도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공급망 불안, 금리인상, 물류비 상승, 우크라이나사태 등 채산성 악화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긍정적 전망 이후 실적체감경기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됨.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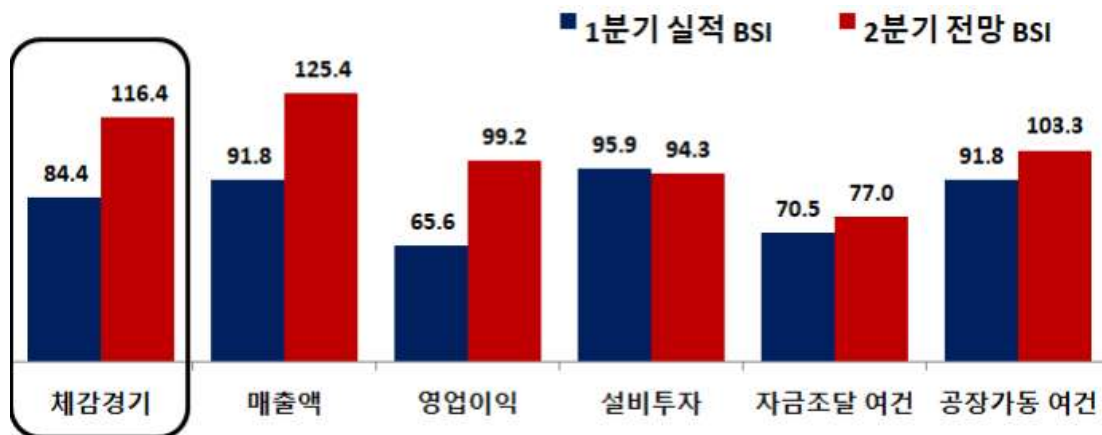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2년 2분기 항목별 전망BSI는 매출액(125.4)과 공장가동여건(103.3) 부문은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99.2), 설비투자(94.3), 자금조달 여건(77.0) 부문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했음.
- 매출액 부문의 전망BSI가 기준치를 상회했음에도 나머지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영업이익 및 자금조달 부문의 전망BSI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는 패턴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산업생산이 재개된 2021년 2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음. 결국 이러한 패턴이 최근 원자재가격과 환율 상승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른 실질 조달비용 급증과 기타 생산비 증가에 따른 부담이 수익성 확보를 보수적 전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1분기 항목별 실적BSI를 살펴보면, 매출액(91.8), 영업이익(65.6), 설비투자(95.9), 자금조달 여건(70.5), 공장 가동여건(91.8)로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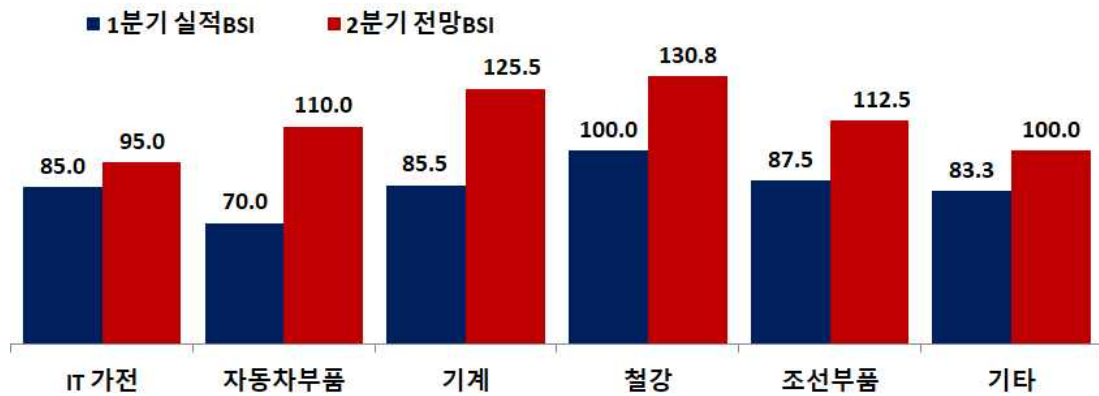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3. 업종별·기업형태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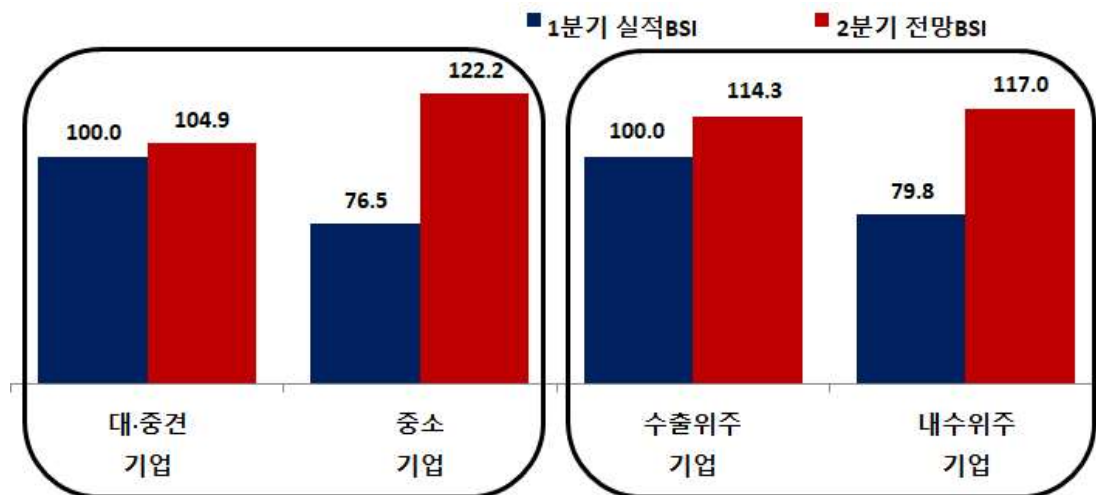
- 2022년 2분기 업종별 전망BSI는 철강(130.8), 기계(125.5), 조선·부품(112.5), 자동차·부품(110.0) 등 IT·가전(95.0)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준치를 상회했음.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 창원 제조업의 규모별·매출형태별 전망을 보면, 대·중견기업군(104.9)과 중소기업(122.2), 수출위주기업(114.3), 내수위주기업(117.0) 등 모든 기업군에서 2022년 2분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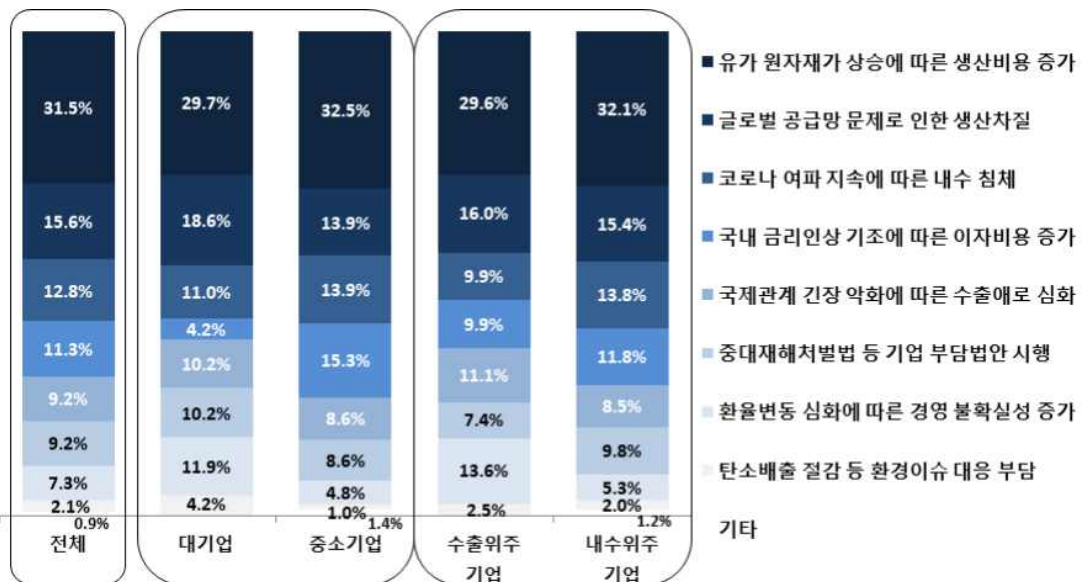
기업 형태별 실적 및 전망 BSI



4. 2022년 2분기 예상 리스크

- 2022년 2분기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응답업체(n=122)의 31.5%가 '유가·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를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15.6%), '코로나 여파 지속에 따른 내수 침체'(12.8%), '국내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11.3%), '국제관계 긴장 악화에 따른 수출애로 심화'(9.2%),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부담법안 시행'(9.2%), '환율변동 심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증가'(7.3%), '탄소배출 절감 등 환경이슈 대응 부담'(2.1%), '기타'(0.9%) 순으로 답했음.
- 모든 기업군에서 '유가·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를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한 가운데, 다음 리스크로 대·중견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18.6%)을, 중소기업은 '국내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15.3%)를 꼽았음.

2분기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4. 차기정부 중점 과제

○ 국내외 경제현안 중 차기 정부가 중점으로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과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을 각각 25.6%, 25.3%로 응답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 미래산업 육성’(15.0%),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등 국제관계 대응’(12.6%), ‘사업전환 재편 지원 확대 등 기존업종 고도화 촉진’(11.9%), ‘신산업 인재 육성 등 인력 수급 개선’(4.4%), ‘친환경 R&D 지원 등 탄소중립 이행 활성화’(4.1%), ‘기타’(1.0%) 순으로 답했음.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23.6%)을, 중소기업은 ‘노동 관련 제도 개선’(29.9%)을 가장 많이 꼽았음.

또 대·중견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등 국제관계 대응’(16.0%)에, 중소기업과 내수중심기업은 ‘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 미래산업 육성’(15.5%), 수출중심기업은 ‘사업 전환·재편 지원 확대 등 기존업종 고도화 추진’(16.4%)으로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경제현안 중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n=122)

